

# 제30회 기독교 학문학회 기조강연 1 한국의 기독교세계관의 어제와 오늘

송인규 (합신대 교수, 동역회 이사)



30년 전에는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개념을 소개하고 보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은 어디서나 기독교세계관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시기라 보고 기독교세계관의 왕성히 활동하시는 두 분, 원로라 할 수 있는 두 분과 30여년을 되짚어 보면서 의미를 확인하도록 한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아마도 1980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무방하다. 제임스 사이어의 책 『The Universe Next Door』를 당시 대학원생이던 참석자들이 한 챗터씩 돌아가며 번역하고 토론하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 이후 30여년의 시간이 지나며 변화도 있었고 발전도 있었다. 지금은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이름을 표방하는 많은 단체, 모임들이 있다. 기독교세계관에 관한 번역서 및 국내저자들의 원 저술까지 다양한 저작들이 즐비하고, 기독교세계관이라는 말을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세계관의 최근의 처지를 들여다보고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을 담아내다보도록 하였다.

두 번째, 과거부터의 지속되어 온 질문들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내 기억으로는 2002년 즈음 기독교세계관 페기론이 제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핵심 질문으로 두 가지 사항이 있었다. 첫째, 기독교세계관은 어느 특정한 신앙 전통(e.g., Reformed)과만 연관된 것인가? 둘째, 왜 기독교세계관을 배웠는데 별 변화가 생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기독교세계관 자체가 문제일까? 아니면 기독교세계관을 제시하는 방식이 너무 명제적이고 철학적이어서 문제일까? 아니면,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피상적 이해 때문인가? 혹은 기독교세계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가? 끊임 없는 질문들 속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과제

첫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기독교세계관의 정체 확립은 아직도 필요하다. 기독교세계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명료하지 않으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공동의 사명을 논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왜 기독교세계관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기독교세계관을 아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기독교세계관을 알지 못할 경우에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면, 이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분명 기독교세계관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차이여야 이 운동을 하지 않았는가?!

둘째, 기독교세계관과 개인·공동체의 변화가 문제이다. 왜 기독교세계관을 알아도 변화가 없을까? 물론 그 이전에 더욱 근본적으로 기독교세계관을 알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이에 대한 원인 규명, 진단 및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실상 모두 기독교세계관의 정체와 연계된 질문들이다.



## 현재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기독교세계관의 용례와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를 말하는 데 쓰기도 한다. 혹은 특정 분야/영역(문화, 직장생활 등)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 만일 “기독교세계관”이 상기 어구들과 교호적(交互的)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왜 부득이 “기독교세계관”을 말해야 하는 것일까? 또, 기독교세계관이 결국 이상의 어구들이 표현하는 바로써 충분히 커버된다면 왜 부득이 이 말을 써야 하는 것일까? 만일 우리가 “기독교세계관”을 포기할 경우, 실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것은 지난 시간 기독교세계관을 강의해 온 본인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셋째, “구조”와 “방향”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알버트 월터스(Albert M.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이 가진 특이점은 다른 기독교세계관 책들과 달리 자신의 주장점을 근거로 여러 가지 사안/주제/내용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한 대안 제시적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에 보면 성, 명령의 은사, 댄스 등 다섯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세계관적 분석과 대안 마련에 대한 힌트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분석과 적용의 이론적 틀이 “구조”와 “방향”이라는 기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조”와 “방향”이라는 이론적 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만일 이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이 책자는 크게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만일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이 틀을 채택하여 여러 가지 사안/주제/내용을 분석하고 기독교세계관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송인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며, 새시대교회에서 섬기고 있다. M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라큐스 대학에서 철학을(Ph. D) 공부하였다. 저서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탐피하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복음과 지성', '고립된 성',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이상 NP)', '이는 만민 누리는 예배(홍성사) 등이 있다.

넷째, 기독교세계관과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원하던 원치 않던 이 두 가지는 모두 서양에서 온 것이고, 포스트모던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살필 필요가 있다. 즉 과연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서양과의 차이점이나 서양으로부터 배울 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독교세계관의 두 가지 저술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세계관』을 자료로 하여 기독교세계관과 포스트모던적 기독교세계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이클 고헤이 『세계관은 이야기다』에서 제시한 것처럼 성경 신학적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세계관의 표현도 좋은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 실정에서의 “기독교세계관” 확립이다. 서양의 책이나 자료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오늘날 한국의 실정에 적실하고 이론적으로도 견실한 그런 연구에 혼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제30회 기독교 학문학회 기조강연 2 기독교 학문의 가능성과 필요성

신국원 (총신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

